

현대제철, 내진용 H CORE 등 고부가가치 시장 공략



1 내진용 H형강 2 현대제철이 업계 최초로 GR인증서를 받았다.

현대제철은 내진용 H CORE 고성능 브랜드 강재 마케팅을 강화해 수익성 극대화에 나선다. 올해 현대제철은 ‘기업 체질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 동력 확보’라는 경영방침을 정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고성능 프리미엄 강재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프리미엄 강재 브랜드 H CORE

2017년 출시한 고성능 건축용 강재 브랜드 H CORE는 지진의 충격을 흡수해 지각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 일반 강재 대비 높은 에너지 흡수력·충격인성·용접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외부 충격으로부터 거주자의 안전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 2월에는 내진 성능뿐만 아니라 고온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더욱 향상할 수 있는 내화 내진 복합 강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건축용 강재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뽐냈다.

현대제철이 개발한 내화 내진 H형강은 1mm² 면적당 약 36kg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으며, 강재 온도가 600°C까지 상승해도 상온 대비 67% 이상의 항복강도를 유지해 건물이 붕괴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일반 강재는 350°C에서 항복강도가 상온 대비 30% 이하로 감소한다.

내화 내진 복합 강재를 사용할 경우 건물의 안전도 향상은 물론, 내화 피복재 사용량 절감 및 공정 감소를 통해 공기 단축과 건축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제철이 지난해 내수 시

장에 공급한 형강 제품 150만 t 중 40만 t 이상이 H CORE였고, H CORE 철근 제품도 12만 t에 달했다.

대형 규격 형강 ‘RH+’도 론칭

현대제철은 지난해 H형강 제품의 규격을 확대한 대형 규격 형강인 RH+를 론칭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 기존 82개의 H형강 제품 규격에 55개의 대형 규격 및 39개의 중소형 규격 등 총 94개를 새롭게 추가해 안전성과 강재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규격 확대를 통해 강재 사용량 절감은 물론 이음새 없는 대형 규격 공급으로 안전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RH+를 사용한 VE(Value Engineering)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최근 RH+를 적용해 설계한 건축물에서 최소 10% 이상의 강재 절감 효과가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했다.

철근 형강 GR(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 획득

현대제철이 철강업계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으로부터 형강과 철근 제품에 대해 GR(Good Recycled Product,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을 신규 취득했다. 현대제철은 전기로를 통해 재활용하지 않으면 폐기물이 되는 철스크랩을 주원료로 형강 및 철근 등의 제품을 연간 1천만 t 이상 생산하고 있다. ⑦